

## 발간사

을미년 세밑에 「유통법연구」 제2권 제2호를 발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  
니다.

우선, 이번에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(사)한국유통법학회의 연구윤리규정  
에 따라 엄격한 연구윤리심사를 거쳤음을 밝힙니다.

이번 호에는 최완진 교수님의 “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위법성 여부”, 고희  
석 교수님의 “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 보호”, 김진봉 변호사님의 “후원방문  
판매의 법적 쟁점”, 김건호 변호사님의 “리스계약에서의 소유권유보약정의  
효력”, 김천수 교수님의 “한국형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과 과제” 그리고 이  
병준 교수님의 “다단계판매와 다양한 규제 수위”가 수록되었습니다. 이들은  
모두 유통법 및 유통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.

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귀착지가 소비자라는 점에서 그에 관련되는 유통  
법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불가결, 불가양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. 소  
비자의 이익은 두 가지 요소가 구비될 때 한층 증진됩니다. 소비자 친화적  
인 유통기업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여야 하고,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 
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. 사실, 소비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. 그런 점에  
서 국민은 모두 소비자입니다. 그러나 금년 한 해에도 소비자인 국민은 국  
가기관으로부터 주인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. 국회의 유통  
규제법은 늘어갔고, 법원 역시 소비자가 곧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적

인식에 인식했습니다.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“기업가인 상인”보다 “소비자인 국민”이 우선하고 “기업끼리 상생”을 넘어 “국민과 상생”하는 기풍이 진작 되었으면 합니다.

이번 호의 발간에는 출판이사이신 이병준, 최난설현 두 분 교수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편집간사인 이혁 박사와 김은주 부간사의 노고가 함께 했습니다. 이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15년 12월 31일

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최 영 홍